

# 목포 원도심에 300병상 종합병원

### 새안종합병원 MRI 등 최첨단 시설 갖춰 개원 치매환자 전문 병동 운영도...본격 의료서비스

의료환경이 열악한 목포 원도심에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문을 열어 의료 공백을 메울 것으로 기대된다.

8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6일 박지원 민주당 국회의원과 정종득 목포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시 연산동 774-1번지에서 새안종합병원 개원식이 열렸다.〈사진〉

이날부터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간 새안종합병원(이사장 어근, 원장 박찬원)은 해인료재단 소속으로 건평 2900여평에 지하 1층과 지상 5층 규모로 장례식장 등을 갖추고 있다.

구 씨더병원에서 지난달 18일 종합병원으로 승격한 이 병원은 299개 병

상을 갖추고 외과, 신경외과, 정신과 소화기 내과, 호흡기 내과, 심장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진단검사 의학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등의 진료를 하게 된다.

특히 우울증과 알코올, 치매 환자를 위한 24시간 전문 간병인이 상주하는 병동을 운영하고 있어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부담없이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또한 MRI와 CT, 심장 초음파 등의 최첨단 의료 시설 등을 갖추고 24시간 전문의가 직접 진료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데다 각 병실마다 화장실과 샤워시설을 완비해 그동안 열악했던 목포 원도심 및 신안 군민들이 안전



하고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새안종합병원 어근 이사장은 "100여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지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을 다짐했다"며 "상대적으로 고령인 원도심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 “원전 냉각수 바닷물 30년 사용케 해달라”

### 영광원전, 군에 허가 신청...수용 여부 주목

영광원전이 그동안 1년 단위로 받았던 공유수면 점·사용 및 해수 사용 허가를 30년으로 해 줄 것을 자치 단체에 요구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8일 영광군에 따르면 영광원전은 최근 원전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가 위치한 바다 6만8614㎡에 대해 2041년 5월22일까지 30년간 점용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달라는 신청서를 군에 제출했다.

또 영광원전 1~6호기가 냉각수로 사용 예정인 연간 115억8664만4의 바닷물을 앞으로 3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개정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 법 제11조(점용·사용 허가의 기간 등)는 '전기사업자가 전

원설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에는 30년' 허가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는 신청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승인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어 최소 15년은 허가해 줄 수도 있다.

이 법 개정 이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은 영광원전이 국내 4개 원전 지역 중 처음이다.

영광원전은 매년 1년 단위로, 그리 3~5년, 월성은 17개월~3년 단위로 허가를 받고 있고 울진은 원전 존치시까지 단 한 번만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동안 주민 여론을 감안해 1년씩 허가를 해 왔던 영광군은 이번 30년 허가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직 결정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더욱 높아진 상황에서 장기 허가를 내주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영광에서 열린 주민 집회에 서 원전이 30년간 점·사용 허가를 신청한 것은 그때까지 원전을 가동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를 철회하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군은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등을 위해 필요하거나, 여건 등을 고려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정해진 기간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과 환경협의회 구성 등 기존 허가시 내걸었던 단서 조항 이행 여부를 자세히 검토 중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허가는 자치단체장 소관이지만 허가 기간이 재량행위지 구속행위인지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면서 "해역 이용과 관련해 해양환경 등 관련 기관과 협의중으로 허가 기간은 여러 사안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전 관계자는 "어업과 해 권리가 없고 단서 조항 대부분을 이행했다"면서 "30년 허가 신청은 원전 수명 연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선기자 ischo@

# 목포상의, 노인 일자리 창출 나섰다

### 시니어인턴십 운영...이달부터 재취업 기회 제공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주영순)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시니어인턴십'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이달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시니어인턴십은 만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에게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목포상의는 노동부 청년인턴제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운

영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지역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니어인턴십은 '인턴형'과 '연수형'으로 나뉘는데 '인턴형'은 참여기업이 노인을 단기계약근로자로 고용해 지원 종료 이후에도 계속 고용을 유도하고, '연수형'은 해당직무의 연수생으로 기업이 지정하는 현장에서 직무연수후 평가를 통해 신규고용을 유도하는 유형이다.

목포상의를 통해 관내 기업이나 단체가 만60세 이상 노인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인턴형'은 월 약정임금의 50%한도내에서 최대 45만원까지 4개월 동안 지원되며, '연수형'은 연수수당 월 30만원을 4개월간 지원되며 연수종료 후 근로계약 체결시 월 약정임금의 50%한도내에서 최대 40만원(1회)을 취업성공보수로 지원받게 된다.

시니어인턴십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사람은 목포상의 홈페이지(http://mokpocci.korcham.net) 공지사항에서 관련 신청서를 다운받아 팩스(061-242-8584) 또는 이메일(mokpo@korcham.net)로 신청하면 된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 전국 민물낚시 대회

#### 15일 진도 보전 저수지

진도군은 오는 15일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진도면 보전 저수지에서 '전국 민물낚시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전남낚시연합회와 진도군 낚시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3일까지 총 200여명을 선착순으로 신청받으며 참가비는 2만원이다. 접수 문의는 국민생활체육 진도군 낚시연합회(061-542-7667)로 하면 된다.

20세 이상 일반인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친환경 점심, 지역 특산물 등 다양하고 푸짐한 기념품이 제공된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 수산연구 시설·장비·기술 교류 협약

### 수산자원사업단-원도수산고

수산자원사업단 남해지사(지사장 양금철)와 원도수산고(교장 이도환)는 지난 6일 원도수산고에서 수산분야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수산연구 시설 및 장비 등 공동이용, 정책 및 학술 공동연구, 기술·정보 교류 및 주요 행사 공동 개최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간 업무 협력을 통한 정보

교류와 교육 프로그램 지원은 수산분야 현장 교육 및 실습 등 산학협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수산자원사업단 남해지사는 수산자원 조성 및 방류업무를 주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전남, 경남, 제주를 관할구역으로 제주사업소와 원도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원도를 정교로 소재 원도종묘사업소에서는 조기류 자원 증강을 목적으로 조기 종묘 생산을 위한 치어



양식을 하고 있다.

양금철 남해지사장은 "조기 수정란 채란 및 종묘생산 과정에 관심이 있는 원도수산고 학생들에게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 전 북

### '독립영화의 향연' 전주국제영화제 폐막

# 방문객 38만명...지역경제 활기

지난 6일 막을 내린 제12회 전주국제영화제(JIFF)는 90%에 육박하는 좌석 점유율과 38만명의 방문객을 기록하고 독립영화의 외국 진출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등 생산적 영화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영화제에는 7만7590석의 좌석 가운데 6만7095석이 채워져 86%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83.4%보다 2.6%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매진 횟수도 286회 가운데 179회로, 273회 가운데 157회가 매진된 작년보다 소폭 증가하는 등 무난한 흥행 성적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영화제와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도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38만명에 달할 것으로 조직위는 추산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영화와 함께 다양한 야외 공연 등의 부대행사를 진행하면서 관람객이 크게 늘었다"면서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표방하는 저예

산영화와 독립영화의 유통, 배급에 활기를 불어넣은 점도 평가받았다.

조직위가 독립영화의 외국 진출을 돕고자 마련한 '전주 프로젝트 마켓'에는 국내외의 125개사에서 294편의 영화산업 관계자가 참여해 활발한 상담을 했다.

한국영화 신작을 상영하는 '인더스트리 비디오 라이브러리'에도 많은 외국 영화제의 프로그래머가 관심을 보였다. 영화제의 수준과 운영 능력도 합격점을 받았다.

영화제를 지켜본 해외 심사위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예술적이며 첨단적인 작품이 많이 초대한 수준 높은 영화제로, 전주를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은 부족한 객석과 숙박시설은 올해도 '목에 티'로 남았다.

영화의 흐름이 디지털로 바뀌고 있지만 전주지역에는 이를 소화해낼 역량이 부족해 충분한 객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 전주 한지 체험

8일 전주시내 한옥마을에서 열린 '전주한지문화축제'에서 어린이들이 한지로 인형을 만들고 있다. 3박4일 일정으로 8일 폐막한 한지문화축제에서는 한지를 이용해 인형·장구·북·비행기 등 다양한 공예품을 만드는 체험 행사가 마련돼 관심을 끌었다.

〈전주시 제공〉

### 화교 자본 유치·보세지역 확대·하늘·바닷길 직항로 개설

# 道, 새만금 중국특화 프로젝트 시동

전북도가 '새만금 중국특화 프로젝트'로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비상하기 위한 날개를 활짝 펼친다.

전북도는 새만금을 세계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국특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삼성그룹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투자 결정을 계기로 이 곳에도 화교자본 등 외국자본과 관광산업을 유치해 새만금을 중국진출 전초기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우선 현재 개발 중인 새만금 산업단지과 관광단지, 고군산군도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3개 지구를 중심으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후 대상지역을 새만금 전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업 계획을 보면 ▲새만금과 중국 간 하늘길과 바닷길 등 다양한 직항로를 개설하고 ▲중국 등 외국기업 투자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양 지역 간 지식교류를 통해 정책적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안 등이다.

하늘길 직항로 개설의 경우 1단계로 2012년에 먼저 군산공항과 중국 간 비정기노선의 국제선을 취항하고 2단계로 군산공항과 남경, 연운항 등 중국 주요 공항까지 확대하며, 바닷길 역시 현재 주1회 운항하던 군산항과 연운항 간 여객선 운항횟수를 내년부터 늘리기로 했다. 또 2014년에는 국제안전기준과 중국의 여건이 마

련되는 시점에서 군산항과 중국 간 위그선을 띄울 예정이다.

중국 등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최근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189만㎡)를 종합보세지역을 지정했고 새만금 매립과 기업입주 진행에 따라 보세지역 지정은 새만금 산업단지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만간 새만금경제청과 중국 텐진 민해신구의 동강보세구 간 우호협력체를 체결하고 새만금에 중국 중심의 외국인 전용공단 조성하고 중국 투자사무소 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 마리나(요트)항 건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뉴스 브리핑

### 전주평생학습센터, 매주 목요일 '고전읽기'

전주동헌에서 매주 목요일 '고전읽기-논어' 강좌가 실시된다. 전주시평생학습센터가 마련한 이번 강좌는 논어를 읽으며 논어에 담긴 정신을 이해하고 현대인들의 삶을 다시금 반추해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주 목요일 10시, 동헌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12일 제1강 '공자와 춘추전국시대'를 시작으로 11월 24일 제21강 '진리의 계보화(요람론)'까지 총 21회로 진행되며 고려대 연구교수인 이천

승박사가 강사로 나선다. 수강료는 10만원이며 전 강좌 수강신청만 가능하다. 전주시평생학습센터(241-1123)로 전화접수 후 계좌입금(전북은행 809-13-0302188 예금주 전주시평생학습센터)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50명까지만 수강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평생학습센터, 전화 241-1123, 홈페이지 www.jjedu.or.kr로 하면 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군산 총의사서 13일 최호 장군 추모제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운 최호 장군을 추모하는 행사가 13일 오전 군산시 개정면 총의사에서 열린다.

추모제는 최호 장군의 숭고한 호국충절의 뜻을 기리고자 매년 열리는 것으로 각 기관 관계자와 최호 장군 후손, 시민 등 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군산 개정면 발전사에서 태어난 최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

의 정예부대를 막아내 의주를 지키고 이순신 장군과 연합해 복상하는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데 공을 세웠다.

이복용 군산문화원 원장은 "살신성인 국가의 뜻을 기리고 숭고한 호국충절의 뜻을 계승하고자 하는 추모제에 많은 시민과 학생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서부산림청 '숲 가꾸기 일관시스템' 운영

서부지방산림청은 8일 숲의 가치와 생태적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산림 내 버려지는 산물을 적극 수집해 활용하는 '숲 가꾸기 일관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부산림청은 재생 가능한 청정연료인 목재자원과 산림 바이오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어 그동안 버려지던 숲가꾸기 산물을 목재로 이용하는 일관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작

업임도 확충, 임업 기계 장비사용 확대, 기계화영림단 육성, 집약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지 규모·집단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 품질을 대표할 수 있는 모델 숲을 10개소 580ha를 조성하고 설계단계에서부터 각 분야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통해 단계 향상된 시스템을 구현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윤길호기자 y2011@